1998. 9. 15 창간

Vol. 213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2016
09



성시화 특집 1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성시화 특집 2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프로그램 소개
선교 선교단체 여름사역
다음세대 청소년 전도학교
교회탐방 사암성결교회
인물 문진기 교육장을 만나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9월 1일(목) ~ 9월 30일(금)

한울 갤러리 오르



한울섬김교회 목사 노에녹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 1길 16번지

천예숙 Chun Ye Sook

- 개인전 33회 (서울,뉴욕,파리,러시아,핀란드,오스트리아,독일,이태리,스위스,인도,일본등)
- 제12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대상 수상 (현대 미술관)
- 제5회 자랑스러운 21세기 한국인상-예술부문(서울 프레스센터)
- 한국미술협회, 기독교미술협회, 강남미술협회 회원, 아세아미술대전, 기독교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장 역임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901
전화 : 02) 542.3144
Mobile : 010.5206.3144
E-mail : artistchun@hanmail.net

Cover Story



가을 아침

김용성 작가 I oil on canvas I 53 x 45.5 cm

쌀쌀하고 외로울 수 있는 가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외롭지 않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대가 되는 소망의 계절이다.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연희,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CONTENTS

2016. 09
Vol. 213







커버스토리	가을 아침	01
Editor's Note		03
9월 캘린더		04
사설	한 사람의 힘	06
성시화 특집 1	2016년 춘천성시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08
성시화 특집 2	2016년 춘천성시선교대회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0
선교 1	아프리카 잠비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CCC)	12
선교 2	여름국내 전도여행 (IVF)	14
선교 3	28th IMTI 훈련을 마치며 (JDM)	16
다음세대 1	청소년 전도학교	18
다음세대 2	2016 여름캠프 (어린이전도협회)	20
통일	중국 러시아의 북한 접경지역을 다녀와서	22
종교개혁	루터의 회심	24
교회탐방	사암성결교회	30
인물	강원춘천교육지원청 문진기 교육장을 만나다	34
예수안에서 본 예술	Genesis I	37
건강이야기	카페인	38
쉼 한편	길을 묻는 사람	40
영화이야기 110	미라클 프롬헤븐	42
예수의 미소 71	편도족	44
음악이야기	코르코도바 언덕	47
알려드려요		48
칼럼	총알 박힌 기드온 성경	50
예향/만평		51
8월을 돌아보며		52
후원자명단		56

Editor's Note

지난 8월은 아마도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다. 폭염의 신기록이 매일 갱신될 정도로 폭염은 절정에 다다랐다. 이 따가운 볕을 받으며 벼 이삭이 피기 시작한다. 벼꽃을 영화라 하는데, 벼 이삭은 나오면서 꽃이 피어 자가 타가 수정을 한다. 벼 하나에 3개의 꽃이 피고 2개는 사라지고 1개만 수정을 한다. 개화를 끝내는 기간은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보통 벼의 수정할 때의 적정온도가 30~34도 정도라고 하니까 지난 8월의 폭염은 벼가 이삭을 만드는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달에는 매일 계속되는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곤함과 무기력이 엄습해 오기도 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였음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계절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폭염이 제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을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물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9월을 생각하면 '열매' 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오곡백과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농부의 수고와 땀을 위로해 주듯이, 성시매거진도 이번 9월호로 1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간 초창기부터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열매가 우리 손에 들려 쥐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매달 발행되는 성시매거진은 현재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선배들의 기도와 땀의 결실이라고 믿는다. 오늘이라는 현재가 과거의 열매인 것처럼, 오늘의 수고는 내일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좀 더 잘 만들 수 없느냐?' 고 서슴없이 따가운 질책을 날리는 분을 만날 때면, '잘 만들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고 웃으며 넘기곤 한다. 밀알이 썩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 일에도 누군가의 밀알과 같은 희생이 뒤따라야 할 것은 분명하다.

춘천의 성시화를 꿈꾸며 성시매거진은 지난 17년간 달려왔다. 이제 지난 해부터 매년 10월 첫 주간을 성시주간으로 정하고 선교대회를 열고 있다. 다채로운 성시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도시가 복음화되고, 성시화되려면 먼저 복음이 그 도시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복음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복음의 상황화라고 한다. 복음이 도시 문화에 상황화되지 못하면 복음은 이질적 문화가 되어 거부당하게 된다. 춘천 도시 안에 복음적인 문화가 자리매김할 때 진정한 성시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문화를 창출하는 일은 개 교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교회가 함께 할 때 도시 속에 기독교 문화를 세워 나가게 될 것이다. 이번 성시주간을 맞아 각 교회가 연합하여 춘천의 복음적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편집장 최영조

2016 9

· 이달의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시편 68장 1절

· 이달의 기도제목

춘천성시선교대회가
춘천교회 연합으로 주의 얼굴
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시주간을 통해
성시화운동이 다시 불붙게 하
셔서 모든 교회 모든 세대가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
하며 영혼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정결케
하사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춘천의 모든 교회가
되어 영적싸움에서 승리하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LORD'S DAY	MONDAY	TUESDAY
4 • 기드온 순방예배 9시, 11시 소양성결교회	**5**	**6** • 홀리클럽 85회 정기기도회 오전 6시30, 제자교회 • 성시본부 선교단체장모임 오전7시 • CCC ~8일 개강세미나 및 선교보고회 • IVF 정기이사회 춘천IVF회관 • 통일기도모임 매주 오후 4시, 주향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매주 저녁 7시 동부장로교회
11	**12** • 쥬빌리 57차 저녁 7시, 주향교회	**13** • 성시본부 선교단체장 모임 오전 7시
18	**19** • JDM ~30일 NG(Next Generation) 그룹 해외 기독유적지 답사	**20** •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개강 오전 10시. 오후 7시
25 • 기드온 순방예배 11시, 그리스도의교회	**26** •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27**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 CCC 개강 채플 • 춘천성시선교대회 준비기도회 ~30일	**2** • 기드온 캠프 조찬기도회 오전 7시, 미가	**3** • CCC ~4일 전국임원단 임명식
7 • 춘천성시매거진 편집회의 오후2시 • IVF 캠퍼스사역위원회 춘천IVF회관 • IVF 강원지역간사모임 원주IVF회관	**8** • JDM 개강채플 • IVF XLGM(연합예배) 강원대 석재카페	**9**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오전7시 온누리교회	**10**
14	**15** 추석 춘천성시 창간일	**16**	**17**
21	**22**	**23**	**24**
28	**29** • 춘천성시선교대회 준비기도회	**30** • CCC 통일 채플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한 사람의 힘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픽션을 가미한 것일지라도 6.25 전쟁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높이 평가하고 싶다. 영화 전체에 대한 평을 논하기 보다는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의 힘(Power of One)' 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맥아더 장군이다. 주변에서의 많은 반대와 작전이 성공이 1/5,000이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도전하여 승리를 쟁취한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며 분명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그런 결단을 갖고 나가도록 만들어 준 데에는 '또 다른 한 사람' 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기 위해서 수원비행장에 내려 수행원을 대동하고 전장을 감찰하다가 참호에 서 있는 한 병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 이 때 맥아더 장군은 그 병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맥아더 장군 자네 언제까지 그 참호에 있을 것인가?

국군 병사 옛! 각하께서도 군인이시고 저 또한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저의 직속상관 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 그 명령이 없을 때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군 병사 옛!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 오! 장하다! 자네 말고 다른 병사들도 다 같은 생각인가?

국군 병사 옛! 그렇습니다. 각하!

맥아더 장군 참으로 훌륭하구나! 여기 와서 자네와 같은 군인을 만날 줄은 몰랐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국군 병사 옛! 우리는 맨 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놈들의 전차와 대포를 까부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맥아더 장군 음! 그리고 또 없나?

국군 병사 옛 없습니다.

맥아더 장군 여기까지 와 본 보람이 있었군.

이 때 맥아더 장군은 병사의 손을 꼭 쥐고 나서 통역을 맡고 있던 김종갑 대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령, 이 씩씩하고 훌륭한 병사에게 전해 주시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미국 지원군을 보낼 것이라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싸우라고." 맥아더 장군은 무기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무명의 병사의 대화를 통해 미국 지원군을 한국 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게 된 결심했다는 일화가 잔잔하게 상영될 때에 감동의 물결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한 사람의 굳은 결의가 엄청난 군대를 그렇게 신속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무명의 병사 자신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전쟁은 많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지만 그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가진 '한 사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되는 시간이었다.

최근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 한 무명의 성도가 헌금을 드렸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다가 드린다고 고백하셨다. 본인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을 터인데 마치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춘천성시화를 위해 드리는 예물을 받으면서, 이 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 무명의 병사가 엄청난 연합군을 동원했듯이, 오늘 한 사람의 헌신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주여!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

글 이병철목사 (주향교회, 성시본부 사무총장)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2016년 춘천성시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춘천성시화가 시작된 지 4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해 매년 10월이면 한 주간 동안 춘천성시선교대회가 열립니다. 물론 성시선교대회 주간이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춘천 도성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도성의 변혁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시화의 모토는 전(全) 교회가 전(全) 복음을 전(全) 시민에게 전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총체적 도시변혁운동입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성시화운동이 얼마나 진척을 보이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면 만족스러울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목회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변화를 도모하려면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처할만한 힘을 비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춘천 지역 교회들의 개 교회 상황들도 어려움이 많고, 교회들 간의 연합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더라고 한걸음씩 내디디며 이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44주년이 되는 올 해에도 춘천성시화선교대회가 그 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62:10)는 주제로 한 주간 열리게 됩니다. 이사야62:10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2016년도 춘천성시선교대회를 기획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시선교대회에서 해야 가장 중요한 일은 성시화의 모토 그대로 복음이 도시 전체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회는 전도 전문 강사이신 김두식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전도위원장, 고신대학교 전도학 교수, 모자이크교회)를 모시고 전도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을 듣고, 교회별 전도팀들이 춘천 전역에 흩어져서 직접 전도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는데, 춘천의 교회들이 총력 전도를 기울이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성문으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일어납니다. 춘천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춘천을 축복하면 춘천에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춘천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춘천에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춘천을 축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있을 블레싱 춘천! 이 시간을 통해 춘천의 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한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이 말씀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인데,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큰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통일될 그 날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도자들을 위해 4-14세미나. 다음 세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과 영상 공모전을 합니다. 작년도에 이어 홀리바이크 대회를 통해 통일도시로서의 춘천의 위상을 갖고자 합니다.

세번째, 돌을 제거하라!

이 말씀은 걸림돌을 치우라는 의미인데,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불신일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단 사이비 및 이슬람 세력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와 사모, 장로와 권사 및 안수집사들과 집사들의 기도회, 즉 직분자들이 먼저 춘천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먼저 종식시키고, 바른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여 거짓과 우상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이 도시를 잘 파수해야겠습니다. 금년 성시선교대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춘천에 더욱 생명의 복음이 증거 되어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날려 선한 영향력을 도시 전체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병철목사 (성시본부 사무총장)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주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10

□ 방향 1. 성시화의 모토인 전(全)교회가 전(全)복음을 전(全)시민에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성시선교대회를 진행한다.

2. 전도 전문 강사인 김두식목사님이 저녁 집회와 오전 전도 훈련을 인도하고, 각 교회 전도팀은 거리 전도에 나간다.

3. 함께 만들어 가는 성시선교대회가 되기 위해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블레싱 춘천을 진행한다.

4. 다음 세대에게 영적 세대 계승을 위해 4-14 운동과 연계해서 One Day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역자, 교사,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사역 방향을 공유하도록 한다.

5. 다음 세대들이 성시화 운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도록 그림과 영상 공모전을 열고 시상한다.

6. 역사 바로 잡기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7.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회 홀리 바이크 대회를 열어 춘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8.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목회자와 장로기도회(홀리클럽, 장로회), 사모와 어머니(권사, 집사 등) 기도회를 활성화한다.

□ 일시 10월 3일(월)~8일(토)

□ 강사 김두식목사(전도는 어명입니다!의 저자) 및 다수

□ 장소 온누리교회

□ 일정

시간 / 일정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영화무료상영 "신은 죽지 않았다 2" 1차: 09:30 / 2차: 15:00 춘천명동CGV	대한민국 근현대사 세미나 (박남순선교사) 10:00-16:00 주향교회
오후 2시 - 5시		
저녁 7시 - 9시 30분	목사장로 기도회	

시간 / 일정	10월 4일 (화요일)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사모 기도회	
오후 2시 - 5시		4-14 세미나
저녁 7시 - 9시 30분	어머니 기도회	저녁집회

시간 / 일정	10월 6일 (목요일)	10월 7일 (금요일)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전도 훈련		제2회 홀리바이크대회
오후 2시 - 5시	도시 전도 및 보고회		
저녁 7시 - 9시 30분	저녁집회	블레싱춘천	



선교단체 여름사역이야기 1

아프리카 잠비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처음에는 가난하고 척박해 보이는 잠비아를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충만히 부어주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이 진실로 가난하고 엉망인 선교지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참 복인지 모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판단했던 저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잠비아 선교는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진실과 사랑 없이 주님의 일을 하던 저에게 다시 한번 나의 메마른 마음을 발견하여 사랑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모든 일은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며 나는 그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국이란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기에 더욱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봅니다.

김선옥 대학생 (강원대학교, CCC 순장)



잠비아에서 순모임을 하고 난 후 너무 좋다고 눈을 반짝이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진정한 영적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잠비아에서의 한 달은 하나님과 멀어져가던 나의 영적생활을 다시 돌이킬 수 있었고 그저 순수한 영혼들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고 제자화를 향한 동기부여만 제대로 된다면 잠비아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올 수 있었다.

방예림 대학생 (강원대학교, CCC 순장)

잠비아 캠퍼스에서 비록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이들을 교육하고 트레이닝 하는 건 힘들었지만 역시 하나님 안에서는 안되는 건 없는가 봅니다.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MD와 PMD로써 형제자매들이 임명장을 받고 서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심도 느꼈지만 오히려 한국을 향한 마음을 더 주신 거 같습니다. 캠퍼스에서도 놓치는 게 많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잠비아에 있는 영혼들보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영혼들이 더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각박해지고 차가워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군복무 후 다시 복학하게 되는데,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정으로 노력해야겠다는 귀중한 생각을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순곤 대학생 (강원대학교, CCC 순장)





선교단체 여름사역이야기 2

여름 국내 전도 여행

YWAM 예수전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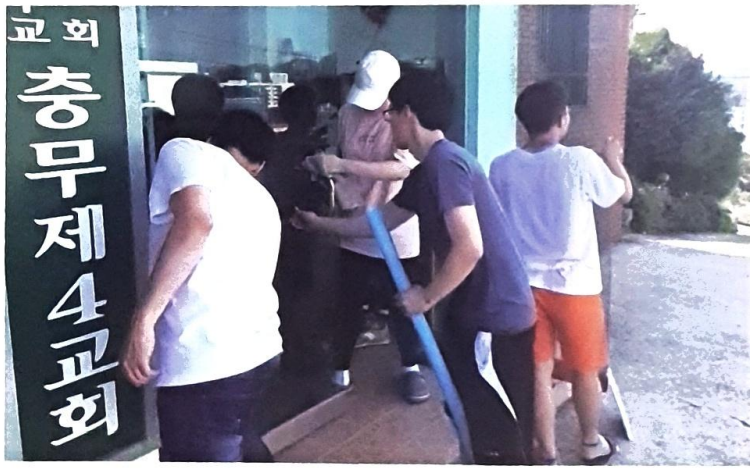
예수전도단(YWAM)에서는 Mission Conference(M.C) 이후에 여름 국내전도여행 (7.4~7.7)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전도여행팀은 [STAND]라는 팀 이름으로 7명의 학생과 간사님이 모여 부산과 통영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부산과 통영 지역에 빛을 비추는 스탠드 같은 자"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는 자"로 저희 팀을 세우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지역 교회에 짐을 풀고, 부산의 이곳 저곳 둘러보며 예배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머물던 지역교회에서 진행하는 치유세미나사역에 협력하여 돕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영에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이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과 통영에서 예배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을 느끼며, 그 곳에서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통영에서 가장 기억남는 사역은 양로원 사역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로이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에 마음은 아팠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복음을 전하고 한분씩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2016년 여름국내전도여행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1, 2학년 때 다녀왔던 국내전도여행에서는 그 지역의 모습들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떠하신지 알아가는 여행이었다면, 이번 부산과 통영에서는 그 지역을 향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산과 통영에 앞으로 일어날 예배자와,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믿음의 선한싸움을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부산과 통영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 분들을 찾고 계시고, 그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여행 중에 만났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박두한 대학생 (한림대 YWAM)



선교단체 여름사역이야기 3

28th IMTI 훈련을 마치며

JDM

예수제자운동

모든 훈련이 그러하듯, IMTI를 통해 깨닫고 배운 바 중 으뜸은 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인생, 우선순위, 감흥 없이 회개하며 반복하던 죄까지 무엇 하나 멀쩡한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3주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유로 결단을 잊은 척, 인간이라는 이유로 거룩함을 모르는 척, 주어진 삶이 있다는 이유로 선교와는 무관한 척, 온갖 '척' 뿐이던 제게 하나님은 매순간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서 없는 마음과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라, 열방을 품고 나아가 제자 삼으라... 이어지는 강의 속에서 참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동안 배움에 한계를 만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물을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사막처럼 제 맘이 메말라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보다 먼저 제자의 길을 걸어오신 선교사님들의 강의는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선교에 매우 빠삭하고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거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열정으로 살아온 선교사님들 인생의 궤적이 제 마음을 때려 울게 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던 입술, 더 달라고 내밀던 손, 허구한 날 악한 세력에게 내어줬던 마음까지... 저는 너무 초라하고 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것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해야 재생산하는 제자를 길러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또, 선교란 막연히 떠나는 해외여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이, 그 기쁜 소식을 제 속에만 담아둘 수 없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명하신 곳에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선교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그 선교의 사명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함을 온 맘과 몸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낍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전 제 영혼의 곤고함을 아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둔 저는 두려울 것이 없기에 단기선교를 결단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방을 향한 제 사랑을 행함으로 보이려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감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정 대학생 (한림대 JDM)

청소년 전도학교

글 최영조 목사(갈릴리교회, 성시매거진 편집장)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교회마다 아동부가 줄고 있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도미도현상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4%가 채 안된다고 하고 중고등부로 내려가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자세도 각기 다른 것 같다. 자연스런 세대의 현상이라고 여기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반응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며 다양한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극소수지만 있는 것 같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넋 놓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쩌면 다음 세대를 세우느냐 마느냐의 골든타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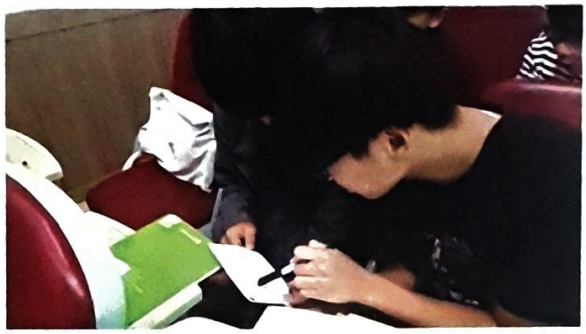
이번 청소년전도학교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진 몇몇 교회들이 일 년 전부터 함께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먼저 목사님 사모님들이 먼저 훈련받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훈련받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2학기 개학을 준비하며 8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주간동안 훈련과 실습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9월 10일 토요일 오후에는 전도한 친구들을 초청하여 수료 소감문을 나누고 간증과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다음 세대를 가리켜 '미친세대' 라고 부른다. '미디어에 친숙한 세대' 라는 뜻이다. 또 다른 말로 '사이버 세대' 'SNS 세대'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마치 타문화권 사람들처럼 기성세대와 언어, 가치관, 문화 등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 당황스러워 하지만 말고 더 다가가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세대를 향한 전도전략을 다양하게 상황화 할 수 있다. 이전 세대들은 전도를 받거나 회심을 통해 교회에 들어왔지만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부모에 의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









해 신앙을 배우고 익힌 세대들이다. 어려운 말로 종교적 사회화를 이룬 이들은 종교인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은 대다수 합리적인 이기주의내지는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세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비전과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전도학교에는 30명의 학생과 10명 정도의 교사와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다양한 방법, 다양한 전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먼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경험하게 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들 자신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복음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내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지? 내가 그분으로 인해 내 삶에 BC와 AD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하는지? 등등을 강의와 토의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언제부터 인가 한국교회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울하고 따분하던 가정에도 새 생명이 탄생하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생기가 넘쳐난다. 1990년대부터 20년이 넘게 깊은 늪에 빠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새 생명의 탄생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전도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모쪼록 이번 전도학교에 참여한 30명의 학생들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처럼 춘천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고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

청소년전도학교 문의)
춘천에벤에셀연합회 홍요셉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2016 여름캠프

강예진 (춘천성결교회, 초등6)

하나님 제가 캠프에 올 땐 재미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작년과 똑같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지만 캠프에 와서 거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니 다르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 캠프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날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고, 죄 지은 걸 기도하는데 정말 사소한 죄가 많았고 조금 죄를 지었다고 그냥 넘어가고 회개하지 않았었던 내 모습에 앞으로는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날 이동학습과 추적게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기도 시간에는 감사한 것을 기도했는데 많은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위해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최승필 (칠성교회 초등5)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주는 나의 구주이신 것이 확신되었고 전도사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잘 돼서 잘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찬양이 작년보다 흥겨웠는데 성경학교가 끝난 후에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네 십!계!명! 가요보다는 찬양을 외치고 있다. 저녁집회때는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다. 막 울면서 쉴새없이 나오는 기도소리, 나도 방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이시다. 나는 성경학교를 갔다온 후 혼자 있을 때 가끔 기도한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좋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녁집회가 싫었다. 왜냐면 피곤해서이다. 하지만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내 생각은 예수님께 웃부짖고 달라졌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칠성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갈 것이다.

이하늘 (주향교회, 초등6)

이번 성경학교에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내가 이 캠프에서만 거룩해 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캠프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정훈 (한빛교회, 초등6)

이번 성경학교는 새로 안 것이 많았고, 진리에 더 다가간거 같다. 여름성경학교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몰랐던 내용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버리시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 노력해야겠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며 이 생각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여름성경학교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키우는데 좋은 거 같다. 이 성경학교는 다시하고 싶다.



성수안 (주향교회, 초등3)

사랑의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박5일을 하고 싶었는데 2박3일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겨내야 할 것이 많아서 힘들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힘들어도 의롭게 해동해야합니다. 집에 가서 세상적인 것이 나를 공격해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내년에 캠프 또 올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하나님의 자녀 수안이가.



절망과 희망은 항상 같은 자리에

IVF 평화순례

중국, 러시아의 북한 접경지역을 다녀와서



글 김현태 대학생 (강원대학교 IVF)

우리의 중국 일정 중 처음으로 북한의 국경지대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마주한 시간이 있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두만강 상류의 강폭이 비교적 좁아지는 그곳을 보트를 타고 약 한 시간가량을 돌았던 것 같다. 정말로, 풀을 뜯는 송아지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북한 주민까지 눈으로 직접 생생히 볼 수 있음에 마냥 신기하였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나에게 '북한'이란 정말 미지의 땅이며 더러는 두려움과 공포로 얼룩진 무수한 상상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랬기에 내가 직접 눈으로 본 북한 땅의 정경과 일상의 그 평범함이 그토록 신기하였었나보다. 뭐랄까, 그들의 일상이 비록 우리와 많은 부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틀리진 않은' 것 같다 랄까. 지금은 서로가 '너무도 이질적인' 체제와 사상과 시스템 속에 있는 두 나라의 '국민'이지만, 그럼에도 원래는 서로가 밥을 굶으면 배고프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같은' '인간'일 테니까.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왜곡될 뿐이



며 그렇기에 그 왜곡된 빛의 프리즘을 바꿀 수만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같은 무리로서 서로 어울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에 대한 방증(傍證)으로, 아이들은 서로 잘 어울림을 보게 된다. 서로의 다름을 비교적 덜 자각하는, 모두가 비슷한 '원석'과 같으니까. 반면에, 어른이 될수록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한다. 서로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아주 잘 자각하는, 환경이라는 망치로 이리저리 '깎인 원석'과 같으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다름을 경계하고, 불편해하는 존재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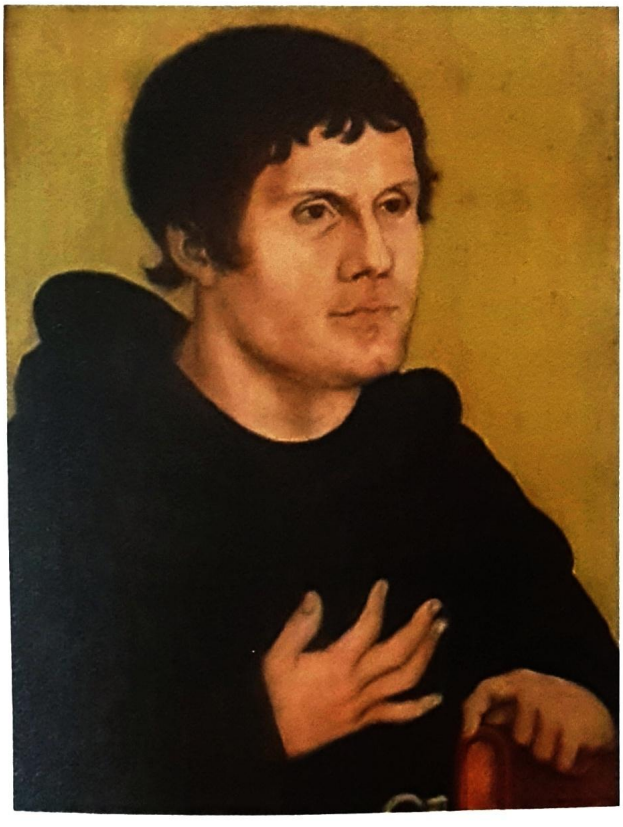


보트를 타고 국경을 넘나들던 중 한 아스팔트 위에서의 풍경이 내 가슴에 담겨있다. 한 편에는 우리를 경계하며 돌을 던지던 북한 장병(將兵)이, 그리고 또 한 편에는 야외 수업을 나왔다가 우리를 신기해하며 손을 흔들던 북한 아이가, 그렇게 한 시선에 머물었다. 장병을 보고서는 "그래, 우리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총칼을 겨눈 '적'이었지."를, 아이를 보고서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서로 손 흔들며 마주할 수 있는 '한민족'이었지."를 자각하게 되었다. 장병은 나에게 이 한반도 땅에서의 '절망'을, 아이는 나에게 이 한반도 땅이 나아갈 '희망'을 보게 하였다.

생텍쥐페리는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정의 위에, 한 아스팔트 위에 자리한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미 서로가 너무도 다르면서도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런 우리가 서로를 넘어 함께 한 곳을 바라볼 지점으로 시선을 갖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시선을 나는 감히 '평화'라고 이름 짓고 싶다. 언제고 절망과 희망은 한 자리에서 함께 나아갈 그 시선을 그리고 있다고, 나로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을 조금의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루터의 회심

글 김현배 목사 (베를린 비전교회)



▲ 마르틴 루터

젊은 수도사 루터의 고민 "영혼의 구원 문제"

젊은 수도사 루터가 고민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다.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가? 나같이 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루터의 마음과 생각을 억압했던 문제였다. 루터는 하나님께 열심히 고해를 했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였으며, 중세적인 공로 신학 체계 아래서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늘 영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루터는 중세교회의 성례와 행위에 의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 수준까지는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때 루터가 이해

한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공로를 쌓아서 얻는 능동적인 의였고, 내가 의롭게 되는 의로움이었다. 루터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즉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했다.

중세신학은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교회가 규정한 어떤 일들을 행하라고 한다. 그래서 루터는 성실한 수도사로서 자신의 힘으로 선행을 쌓고 수도원의 엄격한 훈련과 고행을 거듭하였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보려고 몸부림쳤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열심을 다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교부들의 전통들과 교황청의 법령들에 집착했으며, 성인들의 공로에 의존했다.

또한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은 성자들의 공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또한 성자들의 유물이나 유골 역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다. 루터는 이러한 유물들이 수없이 많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가 철철 넘쳐흐르는 로마를 앙모했으며 다른 성자들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구원을 이루고 싶었다.

루터의 로마 여행

로마 교황청이 수도원을 중앙 집권화 하려 하자 수도원장 요한 폰 슈타우피츠는 루터를 어거스틴파 수도원을 대표하여 로마로 파송하였다. 그리하여 1510년 가을,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파의 중요한 사명을 띠고 로마로 여행하게 되었다.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로마순례의 길을 향하여 떠났다. 그의 업무상의 여행은 동시에 로마 기독교 성지 순례가 되었다.

로마는 성물을 포함하여 수많은 보화가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이나 교도들에게 로마 순례는 하나님의 큰 소망이자 특권이었다. 왜냐하면 성자들의 유해를 숭배함으로 큰 은총을 입기 때문이다. 로마의 칼릭스투스(Calixtus) 성당의 지하실에는 40명의 교황의 유해와 7만 6천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었다. 이러한 성물이 많은 로마를 순례하는 것은 루터에게 커다란 축복이었다. 루터는 그러한 곳에서 수도단의 업무를 하면서 순교자들의 무덤 방문과 여러 성당에서의 미사 집행 및 참회, 지하 동굴과 유물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루터는 가톨릭교회에서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에 따라 1511년 로마 라테란성당의 '스칼라 산크타(Scala Sancta)' 라는 거룩한 계단을 오르며 고행했다. 이곳은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서 '빌라도 계단' 이라고도 불렀다. 당시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



▲ 루터하우스(원래 어거스틴 수도원 건물이었음)

다고 하였다.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씩 오르면서 맨 위에 까지 도달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나중에는 피멍이 들었다. 루터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보았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었다. 당연히 기쁨이나 평강도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다. 루터는 자기의 괴로운 영혼을 만족시킬 영적인 평안도 얻지 못했다.

그때부터 루터는 순례나 고행이

더 나아가 루터는 로마 교황청과 고위성직자들의 사치와 타락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또한 사제들이 사창가를 드나드는 모습과 로마에 만연한 부패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로마교회 사제가 매우 형식적이고 성급하고 경건함 없이 미사를 끝내 버리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였다. 로마 방문을 통해 받았던 루터의 인상은 로마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타락하고 부도덕한 도시라는 것이었다. 그는 오히려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갈망만 더 강해질 뿐이었다.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 루터



▲ 1502년에 설립한 비텐베르크 대학교

1512년 29세가 된 해에 루터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 루터는 1502년에 세워진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교에서 신학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513-1515년 까지 시편을 가르쳤고, 1515-1516년에는 로마서를 강의했다. 로마서 강의 이후에 루터는 1516-1517년 까지 갈라디아서를 가르쳤고, 1517-1518년에는 히브리서 강의를 하였다. 그는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들은 장래 종교개혁자의 사상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수도사로서 시편 찬송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루터에게 첫 번째 선택으로서 시편 강해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영혼의 보물들로 가득하고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시편을 루터는 '작은 성경' 이라고

불렀다. 그 시편에서 신앙의 영적인 교리를 많이 배우게 되었던 루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원수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의 삶과 태도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갈망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루터는 시편을 강해하면서 의한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별히시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시 22:1-2, 시 31:1, 시 71:2)에 대해 많은 묵상과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죄 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떤 죄인도 예외 없이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으며 동시에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 비텐베르크 대학교수, 학생 명단

루터의 탑 체험 tower experience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음

교수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살았다. 그 수도원의 탑 속에 난로가 딸린 그의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 연구실의 이름을 따라 '탑 체험' 이라 불리운다. 이곳에서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적 해방' 이라고도 한다. 사실 이 근본적이며 개혁적인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았던 탑 체험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교회사 학자들은 1513년에서 1515년 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사실상 1517년 이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해를 하면서 그 매듭을 푼 장소는 강의 준비를 위해 제공된 수도원 내 탑 안에 있는 자신의 따뜻한 공부방이었다는 것이다. 후에 이 탑은 비텐베르크 성의 부대시설을 확장하면서 없어졌다.

시편을 마치고 루터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다. 1515-1516년 까지 강의했던 로마서 강해는 루터의 생애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다. 그가 로마서를 읽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였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 문제로 오랫동안 영적으로 고투하

여왔으며, 그동안 엄청날 정도로 루터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주제였다. 루터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자비로우실 수 있는지를 고심하였다. 그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로마 교회나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빛을 던져주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밤낮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 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다.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된 것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즉 칭의(Justification) 문제와 씨름하게 되었다.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루터로 연구하도록 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복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제 서야 하나님의 의가 형벌 개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요, 이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선의요 호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복음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

로마가톨릭의 오류는 선행을 열매가 아닌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루터는 인간은 선행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되거나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의인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 즉 인간은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다. 그는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였다.

성경에 계시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빛 아래서 보게 되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붙잡았다. 즉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음을 깨달았다. 이처럼 루터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받는 것이 곧 구원임을 확신하였다. 드디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의신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루터의 회심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의를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통해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그리고 그 의를 소유하는 수단인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



▲ 비텐베르크 대학교수, 학생 명단

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의를 깨달은 루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고, 십자가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므로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얻어진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세의 하나님의 의와 결정적인 결별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해야 할 요구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받아들이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성경의 새로운 계시의 빛이 비추자 모든 두려움들이 일시에 사라져 버렸다. 이신칭의의 신학이 루터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평안을 느끼고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결국 그의 고통의 매듭이 풀렸다. 그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기쁨이 넘쳐서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영혼의 평안과 삶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선포하셨으니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루터에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늘의 보화가 되었고,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 루터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종교 의식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한 것이다. 즉 수 백년 동안 잠자고 있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 찾은 루터에게는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달리 보였다. 이것이 루터의 회심이다. 어떤 학자들은 슈토테른하임에서 루터가 벼락 사건으로 인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것을 회심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은 탑 체험 사건을 '루터의 회심' 이라고 부르고 싶다. 루터의 회심 체험은 중세적 경건을 뒤집었다. 곧 바로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었다.



사암성결교회
최상도 목사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감당하다

취재 조영춘 기자

사암교회는 춘천 외곽의 사암리에 자리한 아담한 전원교회이다. 교회는 지난 1986년 가을, 춘천 중앙성결교회(윤철중 원로목사, 현 유동선 목사)의 개척 지원과 IVF, 어린이전도협회, 베드로선교센터, 예수가족 등의 후원과 협력 속에 아름답게 자라왔다. 최근 10년간 임대교회 도시선교사역을 마치고, 다시 사암리 옛 터전으로 교회를 재건축하고 돌아온 사암교회는 춘천성시화의 작은 모델이 되는 교회, 평화예수마을 공동체 건설을 기치로 사역하고 있다.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반갑습니다. 최 목사님. 그동안 사암교회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저희 사암교회는 목회자들이 주도하여 세운 일반 교회라기보다는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된 춘천에서 몇 안 되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춘천 중앙교회 집사였던 송융남 원로장로와 심 경자 권사 등이 복음의 열정 속에서 영적 불모지였던 사암리 지역과 학곡리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하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후 교회가 재건축지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부득이 거두리 상가 임대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돌아올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무려 10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부설 「정약용문화센터」, 「정약용멘토스쿨」 등을 의미있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신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라 교회당건물에 대한 큰 미련은 없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20평 남짓한 예배당 건물에서 100여명이 3부 예배를 드리며 버틸 정도로 건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후에는 식당, 교제실이 필요하여 인근 밭을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지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습기 때문에 앰프, 집기 등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된 교회건축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 최명용 장로)



▲ 최상도 목사 (사암교회)

를 결성하고, 온 교우들이 매일 밤마다 천일기도에 힘썼습니다. 돈보다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작년 초에 본격적인 실무 건축위원회 (위원장: 현재용 장로)를 구성하고 설계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설계의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교우들이 새 건물에 대한 이상이 너무 높아 설계가 10여 번이 넘게 변경되어 거의 1년을 허비했습니다. 모두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좋은 시공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강원도청과 춘천실내체육관, 여러 성당들을 지은 최고의 시공사가 기꺼이 저희 교회 공사를 맡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건축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교회 교우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모 교회인 춘천중앙성결교회 교우들, 그 외 뜻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헌물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교회건물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하면 다들 놀라워합니다.



사암교회에 오니까 공동체와 예수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신학교시절부터 두레마을이나 예수원같은 공동체교회와 마을을 꿈꾸었습니다. 졸업논문도 공동체에 대한 논문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 소박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눔교회공동체(담임/피종호목사)를 거쳐 지금의 사암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는 이번 교회당 건축이 단지 하나의 교회당 건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암리라는 마을이 예수마을로 변화하는데 촉발점이 되는 전초기지 사령부를 세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암리가 비전 있는 것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도시는 도시만으로 살 수 없고, 농촌은 농촌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상호 상생해야합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사암교회가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하는 모델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춘천은 민족복음화의 모델도시, 성시화의 제1도시가 아닙니까? 저는 사암교회 공동체가 춘천성시화의 작은 모델이 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꿈도 아닌 것 같습니









다. 우리 민족이 복음화 되려면 모든 도시가 성시화 되어야 하고(성시도시 춘천), 춘천이 온전히 성시화 되려면 모든 마을 마을이 예수마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제목과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 어찌되었던 교회가 10년 정도 사암리 마을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중심부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 각도로 춘천과 사암리 마을을 돕고자 합니다. 저희가 비록 임대교회였지만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문화센터와 정약용아카데미를 세워 지역을 섬기는 법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는 19기가 되는 「정약용문화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선교위원회」와 함께 「7080기타교실」, 「성악교실」, 「라인댄스교실」, 「쿠키만들기」, 「리본만들기」, 「목공학교」, 를 개설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데이스쿨 문화센터」, 실버세대를 위한 「실버겨울대학」이 개설되어 지역을 섬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은혜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원춘천교육지원청 문진기교육장을 만나다



햇볕이 뜨겁고 더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 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지닌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문진기교육장(신성감리교회 장로)을 찾아뵈었습니다. 문교육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행복한 꿈을 꾸는 행복한 학교로, 교사들에게는 지도 역량을 발휘하는 보람찬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춘천 시내 모든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있는 춘천 학교 교육현장에 든든한 지원군이 세워져 있음에 감사했고, 늘 주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Q 교육장님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때나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과 봉사로 섬기고 계신지요?

A 글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특별한 사건이기 보다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면서 학생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넉넉지 못한 농부의 자녀이며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과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격인 학도호국단 연대장으로 세우셔서 리더십을 길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나약해져 있던 청년 시절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혀 알지도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신앙이 돈독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신앙의 바른 길로 세워주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심을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결혼 초까지는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부모님을 교회로 전도하고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 근처의 춘천신성교회로 옮겨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직분은 장로이며 주로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영향을 주셨던 인물이나 책, 성경구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성경 중에 시편 23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



보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Q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언제 이셨나요? 또 삶에서 가장 보람이 있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 이셨나요?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간증을 말씀해주세요.

A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치료를 받은 일이 지금까지 제 삶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제자들이 열심

히 사는 소식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주셔서 강원도내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성취감에 행복한 발자취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Q 현재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중이신데, 교육장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이 된 이후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중·고등학교 교감, 교장, 강원도교육청 장학관을 거쳐 지난 3월 1일자로 이곳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에 교육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주님께서는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학사가 되어서도, 장학관이 되어서도, 또한 이렇게 교육장이 된 것은 제가 생각 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길로 가고자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처럼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기에 그때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교육장님으로서 춘천시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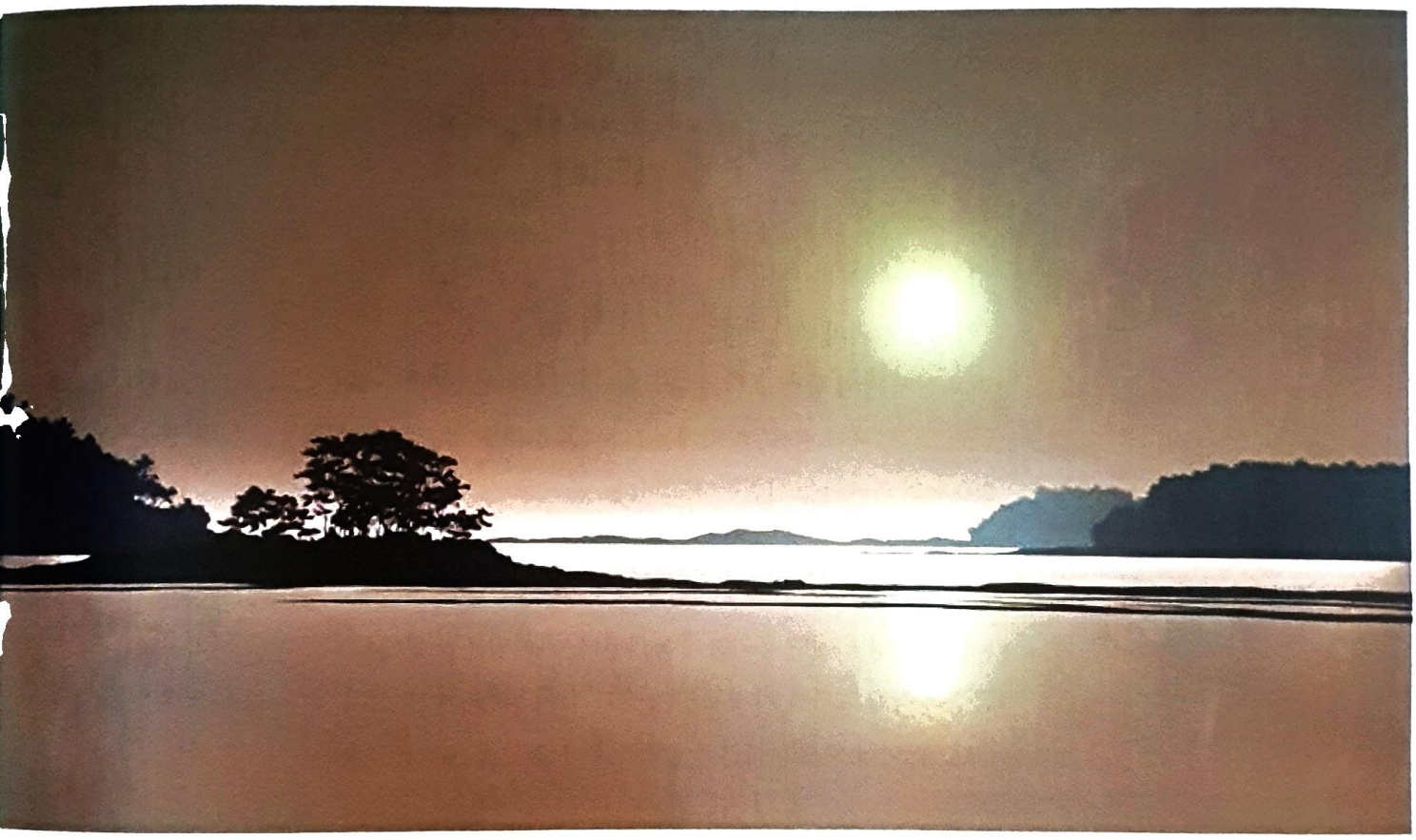
A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있기에 학교가 있는 것이고 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학생으로서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는 학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교로 남기에 학생 중심의 학교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 곳에서 본인의 꿈을 찾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 준비하며 성장하는 곳이기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보람찬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찾을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르치면서 선생님들도 함께 지도 역량이 제고되어 더욱 보람을 느끼는 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임기 동안에 꼭 실행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A 학생들의 행복한 꿈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싶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주역이 될 인재, 행복도시를 이끌어갈 춘천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체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취재 이병철목사 (성시본부 사무총장)



Genesis I

박진원
96 X 162cm
Acrylics on Canvas
LED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의 시간 역사를 낮의 해와 밤에 달로 운행하시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컴퓨터 시퀀싱의 도움으로 한 그림 안에서 동이 트고 해가 뜨고 낮이 되고 노을이 지고 밤이 되는 하루에 사이클을 한 평면의 작업에서 구현했습니다.. (작가노트)

전시안내

춘천 아가갤러리 2016.9.20.~9.30
서울 갤러리처치 갤러리 2016.10.29.~11.15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카페인



카페인은 커피, 차, 청량음료, 진통제, 감기약, 두통약, 잠 안 오게 하는 약 그리고 살빼는 약 등에 포함된 자극제이다.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100 ~ 150mg이 들어 있고, 차에는 1/2, 콜라에는 1/3이 함유되어 있다. 보통 성인들은 하루 평균 280mg의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한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3-10시간으로 복용 30-60분 후에 최고 농도에 올라가고 뇌(뇌혈관장벽)에도 용이하게 통과한다. 카페인은 소량에서 다행감을 야기하며 긍정적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술과 같이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량(1300mg 이상)에서는 불안과 불쾌감을 유발한다.



카페인을 하루 최소 250mg 이상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독 증상은 불면, 불안, 과민, 흥조, 위장장애, 부정맥, 호흡곤란, 근육의 수축, 빈뇨, 발한 등이다. 대량을 복용하면 언어장애, 사고장애, 격정, 탈진, 이명, 환시 등이 나타난다. 10mg 이상 복용 시 경련, 호흡마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장기 사용 시 위궤양을 악화시키고 심장부정맥을 야기한다. 내성은 불확실 하나 신체적, 심리적 의존이 발생한다. 카페인 금단 시 두통, 피곤, 안전부절못함, 우울, 무감동, 오심, 구토, 카페인에 대한 갈망,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카페인과 연관되어 불안장애나 수면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자주 마시는 커피가 나를 더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선 카페인 섭취도 절제가 필요하다.

카페인 의존도를 체크해 보자

(출처 :소소한 심리학)

- □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매일 섭취하십니까?
- □ 오전 일과 중 카페인을 섭취 안하면 두통이 있습니까?
- □ 카페인 음료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려고 하십니까?
- □ 하루에 적어도 500mg의 카페인(4~5잔의 커피 또는 3잔의 에너지 드링크)을 섭취하십니까?
- □ 수면을 취하는 대신 카페인을 이용하십니까?
- □ 아침을 카페인 음료와 시작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십니까?
- □ 카페인을 섭취하여도 에너지가 증진되지는 않고 평범한 기분이 드십니까?
- □ 일주일에 카페인 섭취와 관련하여 약 3만 원 이상을 지출하십니까?
- □ 당신의 카페인 욕구를 충족시킨 후 다른 스케줄 등을 진행하십니까?
- □ 물 대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섭취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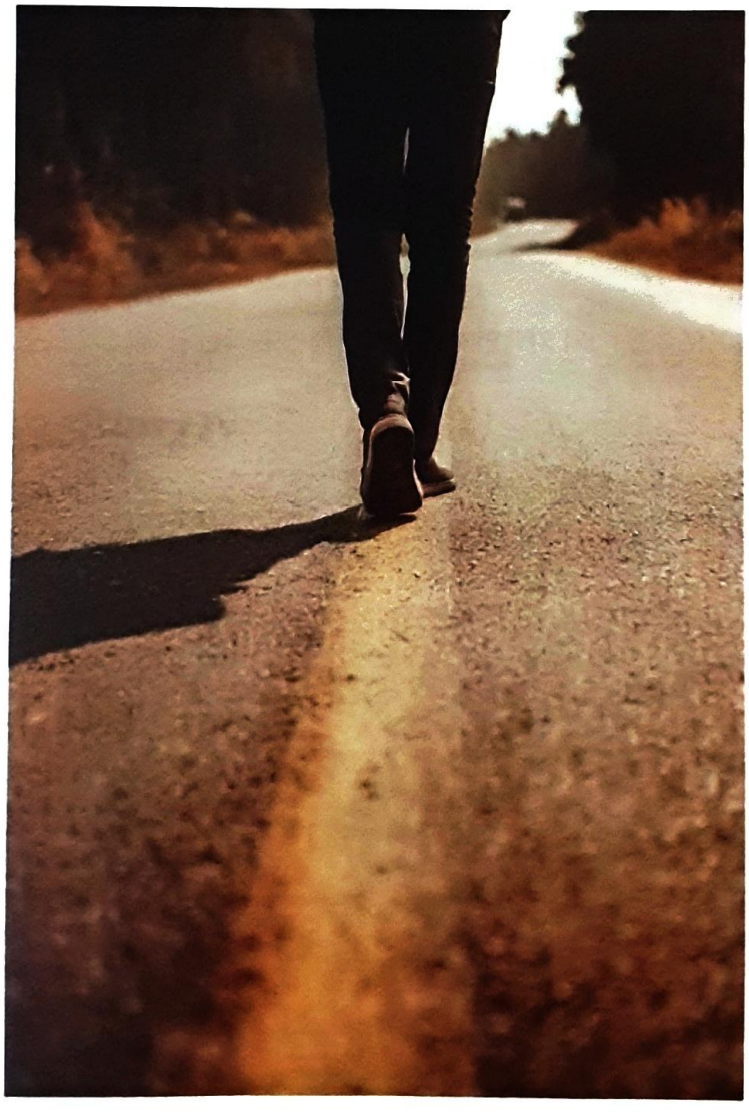
결과보기

- 9~10개: 카페인 중독 비상 상태
- 7~8개: 상당한 중독 상태
- 5~6개: 경미한 의존 상태
- 3~4개: 보통 상태
- 1~2개: 카페인 의존 안심 상태

글 이종성(석사교회 집사)
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길을 묻는 사람

이만칠천여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바치는 헌시(獻詩)



山溫堂 고석희 목사
KWMC 사무총장
예수학당(예수변증인문학당) 훈장
Jesus Academia (Apologia & Humanits)
선교사연장교육원

I

천년千年의 바람
허공虛空을 흔드는데

한 줌 속俗된 세상世上
허허 웃어 넘기고

뜬 구름 무너지는
히말라야 산각山脚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II

빈 마음 한 자락
열풍熱風에 나부끼며

천명天命을 짊어지고
등뼈가 휘어져

붉은 노을 쏟아지는
사하라 사막沙漠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III

찬 비에 젖은 머리
삭풍朔風에 휘날리며

돌아서서 굵은 눈물
손등으로 훔치는가

푸른 달빛 부서지는
바이칼 호반湖畔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IV

성령聖靈의 바람
땅 끝에 불기까지

주主 예수 흘리신 피
심장心臟에 담고

눈보라 몰아치는
시베리아 동토凍土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영화이야기 - 110

믿음, 그 이상의 사랑

미라클 프롬헤븐

글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여름으로 들어설 무렵 편집부 이관형 권사가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를 아냐고 문자를 보내왔다. 물론 처음 보는 영화였고 즉시 검색했는데 최근 상영된 영화였다. 네티즌의 반응이 엄청 좋게 나왔다. 그러나 아직 번역자막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훗날을 막연히 기약해야 했다. 그런데 장마와 폭염의 어느 저녁 문득 생각이 나서 무심히 다시 찾아봤는데 며칠 전 올라온 거였다. 그것도 완벽한 번역자막과 함께 말이다.

제니퍼 가너(명배우 벤 애플렉의 부인이자 그 자신 또한 화려한 경력의 여배우이다)라는 유명한 배우를 중심으로 출연 그 자체만으로도 영화에 생기가 돌게 하는 매우 인상적 캐릭터의 흑인 여배우 퀸 라피파가 출연하여 극의 분위기를 한층 탄탄하고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 게다가 감독이 누구인가? 지난 4월 소개되었던 안토니오 반데라스, 줄리엣 비노쉬 등 쟁쟁한 배우들을 등장시켜 남성적 파워를 느끼게 한 〈33〉을 연출한 바로 그 놀라운 여류 감독 패트리시아 리건이 아니던가?

가족과 교회와 병원 사이를 오가는 팽팽한 갈등과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어울려서 오케스트라를 이루다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응집되어 울컥하는 감동으로 어느덧 눈가가 젖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가정의 역경과 믿음의 감동적인 영화들을 다수 만나보았지만 이 영화는 단연 그 뭉클함과 은혜로움의

절정이 아닐까 할 만 하다!
각기 개성 강한 세 명의 딸을 키우는 어느 가정의 단란함 속에 둘째 애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입원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해 다시 병원을 옮기게 되면서 이야기는 우리의 일반적 예상과 다른 상황으로 그 스펙트럼이 분산되어지는 것이다.

명의를 만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의 깊은 암시적인 만남들 그리고 병실 생활 중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곁의 환우에게 위로와 넌지시 전도도 하는 애니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파장으로 번져가는 것이니… 결국 완치가 안 된 상태로 퇴원한 애니에게 닥친 의외의 돌발상황… 기적은 그렇게 우리의 판단과 의지에 어긋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영글어 가다가 활짝 피게 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소개한 〈천국에 다녀온 소년〉 같은 신비한 체험담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고 기적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의미심장한 메타포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세상 그 자체로도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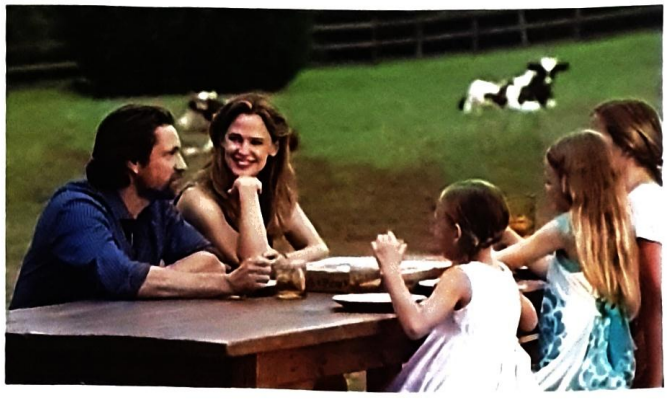
"어떤 역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해요"라는 엄마 크리스티의 대사 역시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진한 감동과 여운을 안겨주는 대목이다. 이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놀라운 연출로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여감독은 알고 보니 7년여 전 멕시코 판 '엄마 찾아 삼만리' 인 〈언더 더 세임 문〉이라는 작품으로 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사람이었다. 대체 그런 역량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지난 가정의 달 5월에 개봉하여 〈신은 죽지 않았다2〉 뿐 아니라 여타 화제작들을 뛰어넘는 흥행기록으로 화제를 낳으며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크리스티 윌슨 빔의 〈The Miracles from Heaven〉소설을 바탕으로 했다는데 작가 자신의 가족이 겪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 한다. 실화 속 가족은 실제 텍사스 벌루슨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화는 죠지아 지역서 촬영되었다.

곧 다가올 추석명절에 가족이 모여 함께 감상하면 은혜가 충만한 시간과 경험이 될 것이다.





25 X 20cm 사각형에 목숨 걸다

편의점 도시락 족

글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그동안 필자는 의무적으로 먹는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유로 토스트에다 과일 잼을 발라서 과일 주스를 먹은 것이 나중에 알아보니 각설탕을 한움 큼씩 먹은 것과 다를 바 없었고 주말 한 끼는 정크 푸드 세트인 햄버거, 감자튀김, 닭튀김, 콜라를 먹다보니 내 몸뚱아리 전면부가 퉁퉁 부어올라 마치 금복주 소주의 모델 같아 보였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다이소에서 식사 대용으로 전투식량을 구입했다. 전국 어딜 가나 기사식당 최고 별미가 돼지두루치기라면 전투식량의 최고 별미는 바로 비빔밥소고기다. 그 외 야채비빔밥, 김치비빔밥, 소고기고추장비빔밥 등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100g 기준 개당 1,800원에서 1,200원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이것도 가끔씩 먹어야지 맛있다고 자주 먹다보니 한마디로 질렸다.

시간, 돈 여유가 없는 탓일까? 바야흐로 집 밥의 열풍은 사그라지고 편의점 도시락 열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집 밥은 시간과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집 밥은 누구나 매일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니다. 그렇다고 외식은 비싸기도 하고, 밖에 나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귀찮을 것이다. 필자도 바쁜 업무에 기다보면 외식이고 집 밥이고 간에 그냥 편의점 도시락은 싸들고 와서 집에서 먹는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집 밥 보다 시간과 돈이 절약되는 맛있는 편의



추천품목

김혜자의 진수성찬 3,500원

혜리의 11찬 4,500원

백종원의 매콤불고기 정식 3,900원





점 도시락이 집 밥보다 더 대접을 받고 있다.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도 혼자 삼각 김밥에 컵라면 먹는 모습과 함께 편의점 도시락도 혼자 먹는 모습을 그것도 스마트 폰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봤다. 이렇듯 값도 싸고 양도 적당한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이젠 흔하게 볼 수 있다.



편의점 도시락은 '김혜자 도시락'을 선두로 '혜리도시락' 그리고 '백종원 도시락' 이렇게 3파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또 치킨업체에서는 닭 반찬과 비벼먹는 치킨도시락인 '치도락'을 출시준비중이며 이외에도 지금보다 더 다양한 찌개도시락에 이어 프리미엄급 도시락을 개발중이라고 한다. 편의점 도시락은 싸구려 음식취급을 받던 예전과 달리 이젠 '편도족(편의점 도시락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

이런저런 일로 일본에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도시락을 잘 사먹는다.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각 지역마다 가지각색의 도시락이 있어 도시락의 천국이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회사원들이 쏟아져 나와 길게 줄지어 편의점 도시락을 사가는 모습이 또 하나의 구경거리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먹는 도시락의 단점이라면 검은색 차가운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긴 음식을 전기렌지에 데워먹는다는 것이다. 안전하다고 설명문에 적혀 있지만 사실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토마토' 도시락 전문점이다. 토마토 도시락 전문점은 즉석에서 조리를 해서 두시간만에 시식을 하는데 편의점보다는 가격대가 살짝 비싸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주 즐겨 먹고, 먹다가 남은 비엔나소시지 하나, 손톱만큼의 젓갈도 남으면 그냥 버리지 않고 락앤락에 잘 보관했다가 다음끼니에 꼭 챙겨 먹는다.

하지만 편도족은 주로 시간과 돈이 없는 20~30대 직장인과 대학생이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이같은 편의점 도시락은 여러 사람들이 사교활동을 하듯 서로 어울려 요즘 화젯거리로 삶의 재미를 나누는 식사형태가 아니라 주로 혼자 먹는 음식이란 점 다시 말해 밥은 함께 먹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집단문화가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외로움이란 친구와 함께 편의점 도시락으로 도대체 몇개를 사 먹어야 되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우리 교회에 기러기 아빠인 권사님이 계신다. 같은 동년배라 허물없이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권사님 혼자라서 외로우시죠?' 라는 내 질문에 이런 답 글을 보내왔다.

'성령이 늘 저와 함께 있어서 전 외롭지 않습니다.'

나랑 같은 권사인데도 여러모로 참 부러운 권사님이시다.

일반 식당에서 싸게 먹는 음식 값이 보통 5,000원인데 반해 편의점 도시락은 거의 대부분 4,000원 이하이다.

스탠 게츠와 길베르토 (STAN GETZ/ GILBERTO : CORCODOVA)

코르코도바 언덕



아직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맴돌고 있는 듯한 나른한 오후입니다. 갑자기 꿈결처럼 보사 노바의 음률이 들려오고 브라질 리우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흥겹게 뛰노는 아이들의 흥얼거림과 멀리 코르코도바 언덕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석상이 어른거립니다. 올림픽의 환영에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세속적인 리우의 보사 노바 음악 이야기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미를 향해 우리가 흔히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학적인 분류에 의해서입니다. 라틴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동네라는 뜻이지요. 거대한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스페인어가 아닌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정열의 나라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축구와 삼바 그리고 유명한 카니발 축제이지요. 삼바라는 전통음악이 60년대 재즈를 만나 그들만의 독특한 분위기로 〈보사 노바 BOSSA NOVA : 새로운 경향, 감각〉라는 아주 세련되고 부드러운 해변의 미풍 같은 음악을 만듭니다.

이번 올림픽이 치러진 리우는 바로 그 본 고장이죠. 그래서 브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코파카바나와 이파네마 같은 해변에서 흔하게 들려오는 댄스뮤직과 더불어 보사노바의 흥겹고 때로는 감미로운 그들의 음률과 함께 석양을 감상한다든지, 카페 올레나 에스프레소 한잔과 함께 이른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해변에서 일출을 바라보거나 산책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마 보사노바를 널리 보급한 사람은 리우 출신의 기타리스트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호빔 〈ANTONIO CARLOS JOBIM〉과 후앙 길베르토 〈JOAN GILBERTO〉에 의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지요. 미국에는 재즈 색스폰 연주자인 스탠 겟츠 〈STAN GETZ〉가 후앙 길베르토와 그의 아내였던 아스트루드 〈ASTRUD〉 와 함께 작업했던 코르코바도〈CORCOVADO〉는 고전적인 앨범입니다

멜로디의 매혹에 빠져 미국의 프랑크 시나트라를 비롯한 많은 올드 팝 재즈 뮤지션들이 그들의 음악을 불렀습니다.

성시에 소개해 드리기에는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곡들이라 다소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민속음악으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흥겨운 멜로디와 지적이며 세련된 감미로운 폴투게스의 언어가 주는 낯선 감흥들에 여름의 추억들을 날려버리시길 기대하며… 여름의 끝자락에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렸습니다.

글 김금찬 선교사(JDM)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9947-9631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 알림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0-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안내

· 일시 : 월~금,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어린이도서관

· 내용 : 어린이 대상 다양한 도서구비 및 독서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033)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⑦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영화관람, 대학교탐방 등)

· 일시 : 월~금, 오후 5시30분~7시30분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033)254-7244(내선3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⑧ 한국국제기드온 춘천캠프

· 성서무상반포, 교회순방예배, 회원증모, 매주 조찬기도회 실시

춘천콜밴 010-8363-6925 지용근
공항예약 · 소형이사 · 행사준비 · 기업물류

총알 박힌 기드온 성경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춘천캠프 회장 남준섭장로(순복음춘천교회)

지난 7월23일(토)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150여명이 참석하여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훈련장병 4000여명에 대한 진중 침례식을 행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침례 받는 장병들에게는 우리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간식과 십자가 등 푸짐한 선물과 성경책이 전달되었다. 성경책은 한국국제기드온협회에서 제작한 포켓용 성경이었다. 기드온 회원으로서 그동안 사역한 결과로 제작된 성경이 처음 예수 믿는 병사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니 내심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장병들의 주머니에 넣어진 기드온 성경이 저들에게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문득 청주 캠프(한국국제기드온협회의 시군별 조직은 캠프라고 칭한다)의 이종준 회원의 간증문이 떠올랐다. 간증문의 제목은 "나는 월남 전투 중 기드온 성경으로 살아났다"였다. 이종준 회원은 1967년에 자원하여 월남전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월남으로 출발하기 직전 군 생활 중에 특히 그를 총애하시던 군종 참모께서 국방색 포켓용 기드온 성경을 군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월남 전선에 투입되어 교전 중 베트콩이 쏜 총알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총성이 멎은 후 살아남은 병사들이 전사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중 마지막으로 전사한 것으로 분류된 이 병장을 옮기려고 일으켜 세우는데 이병장이 눈을 떴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놀라며 이병장이 살아났다고 야단들이었다. 이병장의 방탄조끼를 벗기고 보니 가슴에 있는 군복 상의의 포켓에 성경책이 들어 있고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부대원 모두 이 병장은 하나님이 살렸다고 환성이 터져 나왔다. 이 병장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저 총알 박힌 기드온 성경책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 405장(나 같은 죄인살리신)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한다. 이 외에도 기드온협회가 배포한 성경을 읽고 자살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고 새 삶을 찾았다든가 또는 기드온성경을 통해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사례 등 여러 간증이 많다. 교회를 순방하며 헌금을 모금하랴 성경을 직접 전달하며 전도하랴 피곤한 때도 있지만 목사님들께서 수고 한다고 기도해 주실 때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이 감격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헌금이 성경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생명력을 얻어 살아 역사 할 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부족한 종을 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바랄 뿐이다.

예향

지그 지글러 박사와 천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지그 지글러 박사가 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유명한 리더십관련 서적을 쓴 분이다. 하지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어느 날 지그 지글러 박사가 늦게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너무 피곤하여 졸음운전을 하였는데, 비몽사몽간에 졸면서도 누군가 자기 대신 운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자기는 자다시피 하는데 누군가 대신해서 빨간 불이면 서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였다. 잠이 깨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서는 늦은 시간이지만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내를 부르자 아내는 대뜸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당신에게 갔는데 누가 당신을 대신해서 운전하는 것 같지 않았나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보조 천사를 한 사람 파송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했다. 그때서야 지그 지글러 박사는 감탄을 하며, 나는 천사가 도와주는 행복한 크리스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크리스천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한다. 그렇다. 지나치지 않다는 전제에서 천사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유익하다. 천사가 우리를 지금 돕고 있다. 이는 성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사를 보내신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다.

글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회복을 위한 도구

창 43:14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가족들을 비롯하여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언제나 동일하게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회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림, 글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56차 춘천모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56차 춘천모임이 8월 8일(월) 저녁7시15분에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있었다. 최영두목사(샬롬교회)의 찬양인도가 있은 후, 이병철목사의 사회, 황병호장로(홀리클럽회장, 제일장로교회)의 대표기도,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엡2:18-22)이란 주제로 길이전도사(사랑의 교회 북사랑모임)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이어 이병철목사(주향교회)의 기도회인도가 있었고, 김수복목사(거성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강사인 길이진전도사(탈북대안학교 반석학교 교장)는 탈북자로 주의 종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 다를 수 있다며 통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피흘리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자"고 선포했고, 복음적평화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71주년 광복절기념연합예배



제71주년 광복절기념연합예배가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박찬욱목사) 주관으로 8월 14일(주일) 오후7시30분에 석사감리교회(손학균목사)에서 있었다. 석사교회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과 경배가 있었고, 손학균목사(목회자연합회 부회장, 석사교회)의 사회로 김용기목사(목회자연합회 서기, 푸른샘감리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은 후, 박찬욱목사(목회자연합회 회장, 새순성결교회)의 인사 및 강사소개가 있었다. 이 날 강사인 이덕주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의 "잘 때가 아닙니다(마태24장 32~51절)"란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은 후, 이승구목사(목회연합회 회계, 삼천동성결교회)의 봉헌기도, 정덕현목사(목회자연합회 총무, 푸른초장침례교회)의 광고에 이어 애국가제창이 있은 후, 차덕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강원침례교회)의 축도로 연합예배가 마무리 되었다. 강사이신 이덕주목사는 이 날 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도구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광복절 때 회고록을 보면 어른들은 예기치 못해 꿈만 같다는 고백을 했으나, 젊은 세대는 자신도 모르게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통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된 평화인 샬롬의 역사가 한반도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선포하셨다. 이 날 드려진 예물은 춘천 지역의 원로 및 은퇴 목회자 부부를 섬기는 일에 쓰인다고 하였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가 8월 29일(월) 저녁8시에 석사교하천 야외무대에서 있었다. 이 날에는 이기동목사의 찬양인도가 있었고, 강사인 백광욱 목사가 "5.18의 진실"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거룩한 대한민국, 선진조국, 통일조국, 선교한국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중보기도자들이 뜨거운 기도시간을 가졌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이사회 가져



8월 12일(금) 오전7시에 예사랑교회(홍요셉목사)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이사회(김창환이사장)가 있었다. 이 날은 성시주간에 열리는 2016 춘천성시선교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했다.

순복음춘천교회, 작년에 이어 논산 육군훈련소 4천여명의 훈련병 진중침례식 진행



작년에 이어 제491차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이 기하성 교단(총회장 오황동 목사)과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후원하고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하여 2016년 7월 23일(토) 오후2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있었다. 1부 침례교리문답, 2부 예배와 3부 침례예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침례예식을 통하여 훈련병 4,012명이 침례와 축복기도를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2부예배 설교자이신 이수형 목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마태16장 13~19절)"란 제목의 설교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의 성공적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침례예식에 함께한 민경원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선교국장)는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을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며, 침례 장병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성장되어, 군선교에 이바지하고, 국방의 의무를 잘 마쳐서 사회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대의 신병훈련소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청년선교, 거룩한 사명 실천, 다음세대 선교의 중심이 바로 연무대군인교회이다. 연무대군인교회 훈련병의 80%는 군대에 와서 처음 교회를 나오고 있으며, 복음을 통하여 장병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연무대군인교회 사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순복음춘천천교회(이수형목사)는 군선교를 다음세대 전도를 위한 중심사역의 하나로 정하여 진행하며 섬기고 있다. 금번 군선교 사역의 결실인 진중침례식에 참여한 장병들의 신앙고백이 그들의 평생 변치 않는 신앙이 되어 한국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한다.





초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운데 사암교회가 새 교회당을 신축하고, 입당예배 및 임직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암교회 입당감사예배 및 임직예식

일 시_ 2016년 9월 25일(주일) 오후 4시-5시 30분

인 도_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강원서지방회 (지방회장 한근호 목사, 담임목사 최상도 목사 외)

임직자_ 김주식 장로, 현재용 장로, 박금희 권사, 심재원 안수집사, 엄기증 안수집사 (5명)

장 소_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3-28번지 사암교회 새 성전 ☎ 033.261.7725, 010.6297.2644

※ 본 광고를 초청장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후원자 명단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문충식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성균 신옥자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정희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옥 이은준 이주영 이주희 이진주 이태우 임덕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소현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미영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피종호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무명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시온성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아미교회 엠마오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아가갤러리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후원계좌 안내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033.256.1260

KNUH 강원대학교병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를 소개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 ♥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말기 암 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전인적 돌봄
-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치료 대상자

- ♥ 수술, 항암 및 방사선요법에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
- ♥ 주치의가 완화의료적 치료를 추천하는 환자

입원 절차

입원환자 (담당의사와 상의)
↓
완화의료팀 협진 의뢰
→ 완화의료상담 및 이용안내 ←
↓
환자 및 보호자 (동의, 전산등록)
↓
입원 결정

외래 환자
↓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 완화의료상담 및 이용안내

특화된 서비스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조절, 기본간호, 목욕, 스트레칭 체조, 아로마 마사지

영적 돌봄
기도, 상담, 종교별 원목자 연결

사회 경제적 돌봄
전담사회복지사 상담 및 서비스 자원연계

심리 정서적 돌봄
원예, 미술, 다도, 가족교육, 영화상영, 음악회

상담문의: 033-258-9060/9063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춘천성시 · 매월 첫주 발행 · 211호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구독문의 033-256-1260